

##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2021.8-11 월 서신)

“교회, 가정, 일터를 변화시키는 평신도를 제자 삼아 목회자로 세우는 가정 교회와 선교”

### -감사 인사

1989년 아프리카 선교를 출발한 이후 2001년 성령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AMTA: Africa Mission Through African)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대로 앙골라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14년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양육된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양하고 지금은 멘토 사역으로 13개 교회와 2개 학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골라 제자 선교사들과 함께 시작된 모잠비크 16년간의 사역을 통해 세워진 39개 교회와 2개의 학교 사역을 저희 부부가 올해 10월부터 양육한 제자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앙골라 제자 선교사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이제 모잠비크에서 앙골라 사역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모잠비크 사역은 멘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모잠비크에서 새로운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 선교를 본받기를 소원하며 진행된 선교 사역 가운데 신실하게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동역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부부의 새로운 지역 모잠비크 까뎬브에서의 첫 사역

수도 마뿌투의 긴 다리를 지나면 광활한 수도의 외곽 지역 까뎬브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샤미샤봐 지역의 두 곳에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 첫 지역에 예배를 드린 지 1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에 전도한 청장년 성도들 13-15명과 주일 학교 15-1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청장년 6-8명이 나오고 있고 매일 진행되는 어린이 아침 공부 모임은 15-17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장소는 건축하다 중단된 집을 렌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신자 가정들을 돌면서 목장모임(가정 교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샤미샤봐 지역은 예배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진행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1-3 예배 모습과 가정에서 갖는 목장 모임 모습



### -모잠비크 코로나 19 상황

그동안 교회의 문이 9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열리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검사 숫자가 적어서 최소 10배를 곱한다고 해도 100명 미만의 상황입니다. 최근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민감해진 것 같아 감사한 상황입니다. 백신은 중국 시노팜을 1차적으로 3200만 인구 가운데 200만 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병원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 -모잠비크 본부 교회에서 642차(국제 가정 교회 사역원 순차 번호) 가정 교회 평신도 세미나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처음 겪게 된 가난한 모잠비크 나라와 현지인 가운데 가정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평신도 세미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병원 시설이 열악하고 코로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더 심각해져 집집마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부는 교회의 문을 강제로 닫았고 모임을 가지게 되면 구류가 되었지만 이 도전 가운데 줌 시스템으로 평신도 세미나를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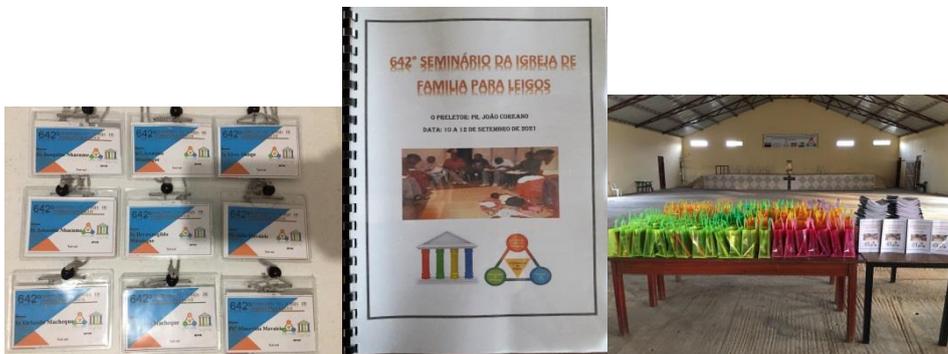
줌 시스템을 사용할려면 스마트 폰이 필요한데 가정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이곳이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이 가능한 집에서 불법이지만 열정 가운데 함께 모여서 줌 시스템을 배워가며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집도 아니고 많은 집에 여러 명이 참석 했지만 어느 한 집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앙골라는 대면으로 교회 모임을 가질 수 있어 루안다 수도의 보아 비스따 소망 교회에서 6개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 35분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자들과 목원의 집에 숙식케 하고 대면으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졌고 모든 강의와 주일 예배는 모잠비크의 풍성한 삶의 센터 교회의 줌 시스템으로 참석 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9개 도시에서 비대면으로, 앙골라는 3개 도시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총 47개 교회 목회자 부부 77명과 목자들과 리더 267명 총 344명이 참석 했습니다. 사모 6명은 직장 문제

와 어린 자녀들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두 교회 15명 리더들은 두 마을에 몇 일간 정전이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들만 거리가 멀지만 도시로 이동하여 줌 시스템으로 참석 했습니다.

**<준비 과정 모습: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감당된 줌 세미나:사진4-10>**



**<선물과 교제 전달:사진11-14>**



**<첫째 날 금요일:사진15-23>**

수도권의 참석자들의 교회들은 본교회 목자, 목녀들이 각 교회로 이동해서 직접 음식을 해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였고 타 지역은 재정을 보내어 드림



**간증(본교회 엘리자 초원지기와 순복음 교회 짐바 목사:사진24-25)**

**엘리자 초원지기:** 지금 크게 사역하고 있는 압살라우 초원을 분가 했으며 코로나 상황에 각 집들을 항상 방문하며 사역을 일으켰는데 한 목원이 확진 되어 어려움이 찾아 왔으나 목원들의 연합 기도로 목원이 회복되게 되어 사역을 지속함으로 부흥이 가능케 됨

**짐바 목사:** 지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가정 교회 사역에 대해 교회의 일부 리더십이 심하게 반대해 왔지만 단호한 결단력으로 진행을 해 오던 중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목자들이 놀라운 헌신적 목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됨



**강의(정선교사:사진26-31)**



소그룹 나눔(Zoom 시스템으로 인해 강의 들은 것에 대해 이해한 부분을 확인하게 함:사진32-36)



식사 시간(사진37-40)



<둘째 날 토요일:사진41-43>

간증(순복음 교회 싱글 이자끄 목자와 저희 교회 루까스 싱글초원지기와 몰라 싱글초원지기)

**이자기 목자:** 주일만 교회를 오던 명목 신자였고 담임 목사의 목회적 삶이 쉽다고 생각 했고 목회자가 항상 자신을 섬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삶이 목장 생활로 한 영혼의 돌봄의 귀증성을 깨닫고 집을 오픈하며 헌신적 목양의 삶으로 청년 목장과 청소년 목장을 함께 사역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됨

**루카스 초원지기:**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청소년과 청년 시절의 아픔을 목장 생활로 치유 받고 목자의 삶에 헌신하게 됨. 코로나 상황에 목장 모임을 반대하는 부모들을 가진 목원들의 집들과 분가한 목자를 돌보며 사역을 잘 감당함

**롤라 초원지기:** 청소년 시절 의붓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큰 상처를 목장 생활을 통해 용서를 하게 되었으며 가정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진 목원들을 세워 나가는데 헌신함. 코로나 상황으로 모임을 반대하는 부모들에게 마스크를 쓰며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허락을 받아 대면 목장 사역을 잘 감당함



#### 사명선언(사진44-46)



#### 양골라 교회들의 사명선언 동영상

\*<https://youtu.be/KeHMMYV6Mu0>

#### 결단(사진47-49)



목장(사진50-58)



<주일 연합 예배>

중보 기도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사진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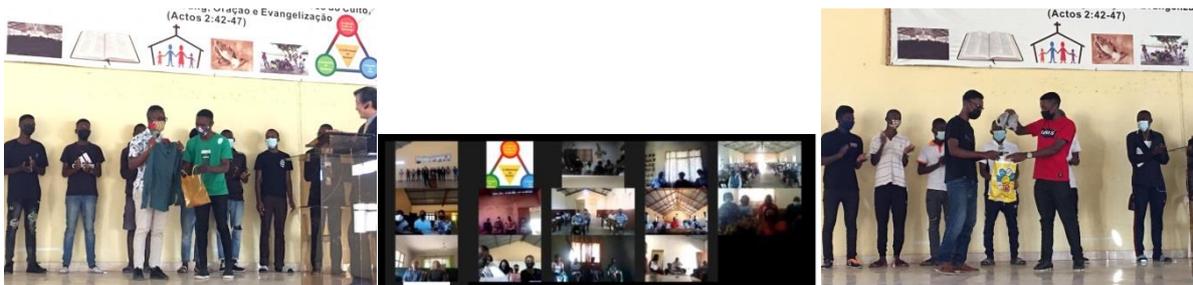
찬양(사진61)



대행 목자들 안수식(3개 목장:사진62-63)



두 개의 싱글 목장 분가식(사진64-66)



간증자들(사진6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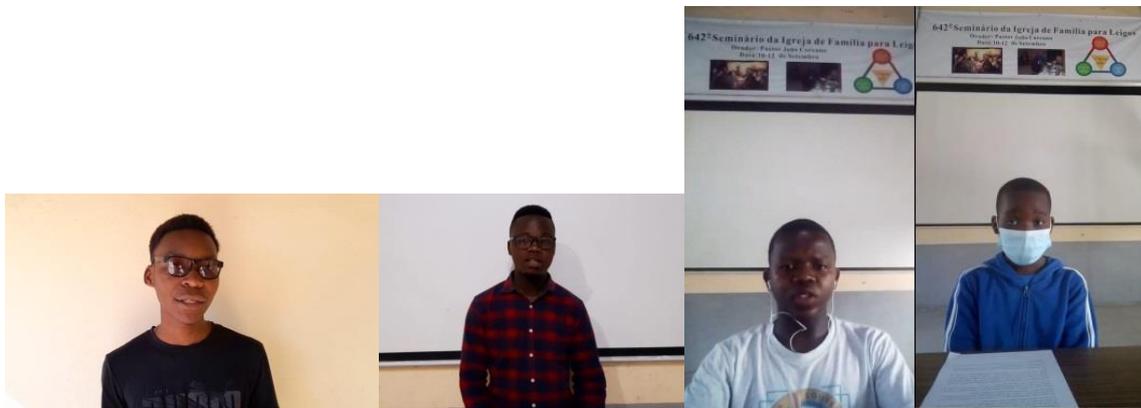
**모저 싱글 대행목자:** 명목 신자로 이기주의적 삶으로 외톨이로 살아가던 중 목장 생활로 삶을 나누는 것을 배워가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헌신적 삶을 실천함으로 목자로 세워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새 5명의 목원을 섬김으로 이끌 것을 헌신함

**실베스트르 싱글 대행목자:** 알콜중독자 아버지와 지금까지 살아감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는데 목장 삶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변화되며 성장하게 됨. 불신 가정인데 여고생 동생을 전도하였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명의 청년을 전도하며 성장하고 있던 중 목자로 세워짐

**알렉스 초등부 사역자:** 코로나 기간 직전에 사역자의 삶을 시작 하여 코로나 기간 중에 초등부 출석 100명을 200명으로 성장 시키며 40개 초등부 목장을 세웠고 20명 예비 목자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매일 어린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항상 그들과 함께한 것을 나눔

**샤길 초등부 목자:** 지금 12살인 샤길은 한 목원 친구를 통해 목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며 목자가 됨.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목원들을 심방하며 대면 목장 모임을 가지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나눔



### 설교(정선교사)와 결단(사진71-73)



### 축도(사진74-75)



### 참석자들(사진76-80)



## <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며 >

### 평신도 세미나 전의 도전들과 기도 사역

세미나 시작 바로 전 주에 모두 일어난 일들입니다. 간증자이며 목회자와 목자들 33명이 참석케 되는 교회의 짐바 목사의 형님 목사께서 소천함으로 상주로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고 14명이 참석케 될 아르세니우 목사의 목자들도 한결같이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 모두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희들도 교회 자께오 초원지기의 모친이 소천 했으며 또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라우라 할머니 성도의 소천과 장례식이 있게 되었고 첫 간증자인 엘리자 초원지기의 몸에도 반신불구 현상이 일어나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영적 도전임을 알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도 세미나를 위해 계속 해 오던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와 릴레이 기도를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였고 무엇보다 많은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로 모든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 열매들

1. 세미나를 위해 기도 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됨
2. 코로나 상황으로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며 잘 마치게 됨
3. 처음 줌시스템으로 진행된 대면(양골라)과 비대면을 함께한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 되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가정교회 목장 사역에 헌신을 결단함.
4. 5개 교회의 총책임 시또이 목사의 경우 10명의 목회자 부부와 34명의 리더들을 참석시켰으며

모든 지교회가 가정 교회 사역에 헌신하도록 결단을 함

5. 세미나에 16명 참석케 한 아르세니우 목사의 교회의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동안 가정 교회 사역이 침체 되고 있었는데 다시 일어서는 부흥을 경험함. 가정 교회를 너무나 심하게 반대 하던 한 리더 가정이 세미나 참석 후 곧 바로 가정을 열며 헌신을 결단하는 일이 생김.

6. 목회자 부부 6명과 27명의 목자들이 참석한 짐바 목사님의 교회들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심 교회에 모여 세미나를 참석 시켰는데 거리가 먼 지교회 목자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중심교회 목자들의 집에 숙박케 하며 세미나에 참석케 함.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경험함

7. 앙골라는 이번 평세에 보아 비스따 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35명의 타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교회의 목자와 목원 자신들의 집에 모시며 섬김으로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정 교회 사역에 더욱 헌신케 됨

8. 수도권에서 세미나에 참석한 타교단 교회들에 직접 가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드리는 일에 헌신한 저희 교회 목자 목녀들은 새벽부터 거의 통금 10시 직전에 집으로 돌아 왔는데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과 혈압 문제와 두통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두 영적 도전인 줄 알고 기도하며 섬김으로 한결같이 영적 승리의 경험을 하며 헌신적으로 잘 섬겨 모든 교회가 섬김의 가정 교회 목장 사역에 감탄을 하며 목장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됨

9. 저희 교회 싱글 목장의 청년 초원지기와 목자들이 기도와 함께 밤을 세며 세미나 준비의 모든 작업을 감당하였고 장년 목자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더욱 헌신을 결단케 됨

10.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타교단 목회자들과 저희 교단 목회자들이 줌 시스템으로 세미나를 마치자마자 13주 동안 생명의 삶을 정식으로 공부 하기를 결단함

#### **-평신도 세미나 이후 목회자들의 생명의 삶 공부**

평신도 세미나 이후 매 주 월요일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 13주 생명의 삶 공부를 6주째 진행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앙골라에서는 10명, 모잠비크는 14명 총 24명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타우루 사역자 결혼식과 엘리우 사역자 가정의 출산 소식**

북쪽 떼떼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수도권으로 내려와 무꾸삐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타우루 사역자와 본부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하던 호잘리나 리더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호잘리

나 목자는 완강하게 신앙을 반대하던 오빠 빠스꼬알 형제를 목자(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땡가 교회와 최근 마호부에 추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우 사역자 가정에 레무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진81-83. 타우루 사역자 결혼식과 엘리우 사역자 가정의 출산



#### -마무리 인사

코로나 19 확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현지 제자들에게 사역을 이양할 수 있도록 크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세대 제자 훈련 사역에 헌신케 하시고 이제 이들이 성장하여 젊은 청년 목회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성장한 현지 제자들이 아프리카 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붙들고 새세대 사역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새로운 지역과 아프리카 다른 국가에서의 이슬람 선교 사역까지 교회 개척 사역과 지역을 섬기는 학교 사역을 꿈꾸며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님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복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선교사 정명섭 이미영 진은 신은 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양된 앙골라와 모잠비크 52개 교회와 4개 학교 사역이 새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며 부흥되게 하시고 정선교사 가정의 멘토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2. 새롭게 시작하는 까뎜브 샤미샤봐 2개 지역의 교회 개척 사역을 정선교사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3. 앙골라와 모잠비크 저희 교단의 수도권과 내륙 52개 교회마다 주일학교 200명 출석과 40개 가정 교회 목장 사역과 중등부 100명 출석과 20개목장 사역 (15000명:300명X50개 교회, 3000개 목장:60개X50개 교회)으로 차세대 선교와 교회 개척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4. 앙골라와 모잠비크 저희 교단 신학교 설립 사역과 타교단 교회들을 위한 가정 교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저희 부부의 건강과 두 아들 진은, 신은이의 영적 성장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